

■르포-‘타르 덩어리’ 덮친 무안 도리포 김 양식장

# 검은 재앙 ‘둥둥’...수확철 발만 ‘동동’

## “어떻게 먹고 사나” 어민들 한숨만

6일 오후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해안에서 2km 떨어진 김 양식장. 청정 해역으로 유명한 도리포의 김 양식장은 검은 타르덩어리로 인한 재앙의 현장으로 변해있었다.

4천척(한 척당, 가로 2m·세로 40m) 규모의 도리포 김 양식장은 타르덩어리에 덮힌 채 검은색을 띠며 굳어가고 있었다. 바다 위에는 타르덩어리들이 떠다녔고, 태안 방제현장에서 떠밀려온 흡착포 등은 김발에 걸려 기름띠를 만들고 있었다.

김 포자가 자라는 김발과 이를 잇는 2m 길이의 대나무(부죽대)도 기름 범벅이었다. 흰 장갑을 끼고 김발에 손을 대자 순식간에 검게 번들거리는 기름 때가 묻어나왔다.

도리포 주민들과 자원봉사자 등 1천여 명이 구합 30일부터 타르 덩어리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김 양식장으로 유입된 타르덩어리에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다. 김 채취 과정에서 김발과 대나무에 묻은 타르가 혼합돼 김 수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양식업 15년째인 한현구(53)씨는 “최소 향후 2~3년동안 김 양식은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해 평균 5~6회 정도 채취하는데, 올해는 한 번 밖에 못했다”며 “당장 기름값도 없는데, 김 양식 자체를 어떻게 충당해서 다시 시작하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초등학교 자녀 둘을 둔 어민 김모(여·46)씨도 “한 해 수입 중 김을 팔아 벌어들이는 것이 8할인데 이번 사태로 자녀

교육비와 생계비를 어떻게 마련할 지 막막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수확철(11월 초~3월 말)에 불어닥친 타르 재앙은 어민들을 절망으로 몰고 있다. 올 수확은 물론 앞으로 수년간 김 양식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타르 덩어리에 노출된 김발(한 척당 3만원)과 부죽대(개당 900원)를 바꿔야 하는 것도 큰 부담이다.

무안군은 타르 덩어리 오염으로 무안 어민들이 입을 재산피해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입증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몰라 보상 받을 길은 막막하다.

도리포 어촌계장 박상범(52)씨는 “나이 든 어민들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입증자료를 만들기가 사실상 곤란하다. 더구나 생산량이나 매출액 등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수 년 전 영수증을 챙겨 놓을 어민들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도 난감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피해 어민들이 가입한 목포 수협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한해 생산량과 매출액 영수증 등 확실한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는 수밖에 없다”며 “일단 기름유출로 오염된 양식장을 촬영해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 해제면 김 양식장 피해어민들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보상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5일 신안군 지도면 만지도 해안에서 신안군청 공무원들이 방제복과 장화 등 기본적인 방제용품도 착용하지 않은 채 타르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방제용품 부족으로 인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방제장비를 챙겨 현장에 투입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태안과 너무 다른 방제 현장

## 방제복·장화·흡착포 등 장비 턱없이 부족 자원봉사자 숙식 직접 해결하며 제거작업

“방제복·장화·현우 등 방제용품 좀 보내 주세요.”

타르덩어리가 전남 서해안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방제 인력과 방제용품이 턱없이 부족해 타르 제거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휴일인 6일 영광과 무안·신안·진도·해남 해변에서 타르 제거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는 1천629명. 타르 덩어리가 전남 서해안으로 유입된 뒤 일주일여간 현장에 투입된 전체 자원봉사자는 7천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 환경은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 발생 현장인 충남 태안에 비해 열악하기 짝이 없다. 방제복과 마스크·장화·흡착포 등 기본적인 방제용품이 부족해 자원봉사자에게 나눠 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남 서해안에 서 타르 제거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노란 비옷과 작업복·비닐 장화 등을 직접 준비해오고 있다. 타르 덩어리를 닦기 위한 기름 전용 흡착포 또한 부족해 자원봉사자들이 직

접 집에서 현 우과 수건 등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마저 부족한 상태다.

식사와 숙박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신안, 무안 등 자치단체 대책본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 제공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 오후 썰물 시간대에 맞춰 점심을 해결한 뒤 현장에 도착하길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회관 등 단체 숙박장소도 여의치 않아 1박 2일 이상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는 민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방제용품이 부족해 자원봉사에 대한 문의 전화가 올 때마다 중식·방제복·비닐장갑·장화·방제도구를 직접 준비해 올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조영식(28·목포시)씨는 “태안에는 인력과 방제용품이 넘쳐난다고 하는 데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운용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청정 전남 해안의 타르 제거에 태안 때와 같은 전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 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

## 여수 침몰 선박 선원 사체 1구 발견

# 조류 불안정 수색 잠정 중단

여수 해상에서 침몰한 ‘이스턴 브라이트’(EASTERN BRIGHT) 호 실종 선원과 선체에 대한 심해수색이 잠정 중단됐다. 여수해경은 6일 “사고 해역의 조류가 불안정해 이날부터 심해수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조류가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3일 이후에나 심해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며 그동안은 해상 수색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일 새벽 1시50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남서쪽 4마일 해상에서 ‘이스턴 브라이트’ 호 선원 예흥탁(54·조리장·부산시 금정구)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조업 중이던 새우조망 어선 선원 윤모(52)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

으며, 해경은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예씨의 시신임을 확인했다. 예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스턴 브라이트’ 호가 침몰한 해역에서 12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또 지난 4일에는 ‘이스턴 브라이트’ 호 선사에서 파견한 심해잠수업체 잠수사들이 백도 인근 수심 67m 깊이의 바다 밑에서 좌측으로 기울어져 절반 이상이 파손된 선체를 발견했다.

한편, 선원 15명이 승선한 ‘이스턴 브라이트’ 호는 지난해 12월25일 새벽 질산 2천t을 싣고 광양항을 출발해 대만으로 향하던 중 백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해 선원 1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14명은 실종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 광주 가정집 불...부부 숨져

지난 5일 새벽 0시 45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김모(51)씨의 집에서 불이 나 김씨와 부인 이모(51)씨가 숨졌다. 불은 1천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에 꺼졌다.

신고자 김모(여·49)씨는 “부인 이씨로부터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전

화가 와서 가봤더니 집에 불이 나있어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자 김씨의 진술과 화재 현장에서 기름통 잔해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은행 통장 10개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범에 판매

구례 경찰은 6일 시중 은행 통장 등을 발급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이를 판매한 백모(여·22·인천시 강화군)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시중은행 통장을 1개당 8만원에 구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H은행 통장 등 10개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전화금융사기범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가 판매한 통장은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께 구례군에 사는 농민 김모(61)씨의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됐으며, 김씨의 통장에서 현금 1천200만원이 백씨 통장으로 인출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 승용차 전복 2명 사상

6일 새벽 4시 10분께 목포시 죽고동 유달산 해안도로 어민동산 앞길에서 ‘15수61XX호’ 포르쉐 승용차(운전자 김모·33)가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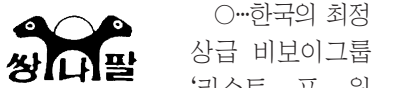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숨지고 옆좌석에 타고 있던 김모(31)씨가 중상을 입고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가 목포해양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급커브를 틀다 핸들을 제때 꺾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목포=이성휴기자 lsh@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hemicals Corporation) products, including DS Industrial (주), KCC Petrochemicals, and KCC Chemicals. It lists various chemical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비비이그름 ‘중도심 방노’ 물의



○한국의 최정 상급 비비이그름 ‘라스트 포 원 (Last for One)’ 펌버들이 중국 도산에서 소변을 봤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

○중국 성도상보(成都商報)는 5일 쓰촨(四川)성 성도인 청두(成都)시 번화가에서 지난 1일 소변을 본 젊은 외국인 4명이 한국의 정상급 맨스 그룹인 ‘라스트 포 원’ 펌버들이라고 보도.

○이 같은 보도 내용이 중국 포털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은 이들이 청두시에 사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술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야 한다며 격렬히 항의.

○‘라스트 포 원’은 비비이 월드 컵으로 불리는 독일의 ‘베를 오브 더 이어’에서 2005년 우승에 이어 2006년 준우승을 차지해 국내는 물론 외국 브레이크댄스 팬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a New Year's event. The background is a sunset over a city. The text reads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Receive a lot of good fortune for the New Year). Below this, there is a list of participating compani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전립선 비대증-KTP 레이저', '신장·요관결석-충격파 쇄석기', '남성수술클리닉, 여성 요실금 수술', '상담 (062) 233-5119', '당주 상무지구 동대문로 65-11 4층 402호 3층'.